

‘사역 현장에서 인정받는 월드미션 인’이라는 표어를 가지고 시작된 2020 년 봄 학기를 마무리하고 가을학기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갑작스런 코로나 사태로 낙망하기 쉬운 어려운 시간이지만 월드미션대학교 공동체가 새로운 힘을 얻고 계속 정진하기 원합니다. 이를 위하여 어려움을 잘 견디어 더욱 유명해졌던 음악가를 소개하고자 합니다.

역사속에서 만나는 많은 음악가들을 살펴볼때 여러가지 어려움을 겪는 가운데 각자의 음악세계를 펼쳐 나간 것을 볼 수 있습니다. 18 세기 고전시대를 빛낸 하이든이나 낭만시대의 문을 열어준 베토벤, 그리고 깊은 우울증을 이겨내고 더 훌륭한 작품 활동을 펼친 라흐마니노프 등의 작곡자들을 공부하면 우리는 큰 위로와 용기를 얻게 됩니다. 또한 어렵더라도 각자에게 맡겨주신 사역과 학생으로서의 책임을 성실히 감당해야 할 이유를 재확인하게 됩니다.

104 개의 교향곡을 작곡하여 ‘교향곡의 아버지’로 잘 알려진 하이든은 사실 쉽지않은 중년의 시간을 보낸 ‘믿음과 인내의 모범’이 되어 주는 사람이었습니다. 거의 서른의 나이에 안정적인 직장같이 보여지나 사실은 노예계약이었던 직작생활을 시작한 그는 나이가 거의 60 이 다 되기까지인 30 여년을 Esterhaza 궁에서 보내며 1 박 이상의 외출마저 금지되는 격리된 시간을 보내야 했답니다. 매일같이 백작의 요구에 따라 작곡과 연주를 준비하며 가치없게 여겨질 수 있는 많은 일들을 감당하면서도 성숙한 믿음의 사람이었던 하이든은 불평하기 보다는 늘 하나님께 기도하며 성실하게 기쁨으로 30 년의 궁에서의 생활을 잘 감당했습니다. 그 인내의 열매로 하이든은 58 세의 나이에 대도시 런던에서 만난 새로운 기회에 너무나도 잘 준비된 자신의 모습을 보게됩니다. 그의 마지막 12 개의 런던 교향곡은 많은 면에서 후대에게 영향력을 끼치며 사랑받는 큰 스케일의 소중한 작품들입니다. ‘Stay at Home’ order 로 답답한 시간을 보내는 우리에게 하이든이 주는 교훈이 있음을 학생들과 나누며 그의 음악을 다시한번 생각하게 되었지요.

베토벤에게도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음악가로 귀가 잘 들리지 않는 병을 얻은 그가 1802 년 서른 두살의 나이에 유서를 작성했다니 그의 좌절이 얼마나 컸을지 상상할수 있겠지요. 죽음을 생각하며 시작된 ‘Heiligenstadt Testament’로 알려진 그의 유서를 읽다보면 놀라운 발견을 하게됩니다. 죽음을 선택하기 보다는 이 어려움을 승화시켜 싸워 이겨 나가겠다는 그의 의지를 찾게되기 때문입니다. 1802 유서 작성 이후 굳은 결심을 한 베토벤은 우리에게 주옥과 같은 유명한 많은 작품들을 남겨주게 됩니다. ‘운명 교향곡’도 이 시기에 작곡되었지요. 자신에게 다가온 고난앞에 좌절하기 보다는 그 감정조차 사용하여 할수 있는 작곡에 혼신의 힘을 다 했던 베토벤. 그의 작품에서는 어두운 Minor 조성으로 시작하여 밝은 Major 로 마무리되는 곡들이 많은데 이를 통해 ‘절망에서 희망으로’라는 메시지를 우리에게 전달하고 있습니다.

이외에도 3 년이라는 기간의 극심한 우울증을 극복하고 너무나도 아름다운 작품으로 사랑받는 피아노 협주곡 2 번을 작곡한 라흐마니노프의 삶도 우리에게 큰 귀감이 됩니다. 대단하고 유명하게 알려진 음악가들의 삶을 살펴보면 사실 우리와 다르지 않은 여정이 많음을 보게됩니다. 각자 받은 은사의 크기는 달라도 우리에게 분명히 해 나가야할 일들이 있습니다. 월드미션대학교는 하나님께서 주시는 작고 큰 메시지를 붙잡으려 함께 애쓰고 있습니다. 지역사회와 교회에서 리더로 남을 섬기는 자리에 있는 학생들은 이 어려운 때에 오히려 주변을 돌보며 더욱 성숙된 모습으로 훗날 맡겨진 사역에 최선을 다하기를 위해 준비하고 있음을 봅니다. 서있는 자리에서 학업에 충실하며 학위를 마무리 하기까지 걸어가는 과정에는 이렇게 귀한 삶의 회복과 마음의 치유가 있습니다. 그리고 나아가 다른 영혼을 살리는 귀한 사역자들의 모습이 그들 안에 있음을 봅니다.